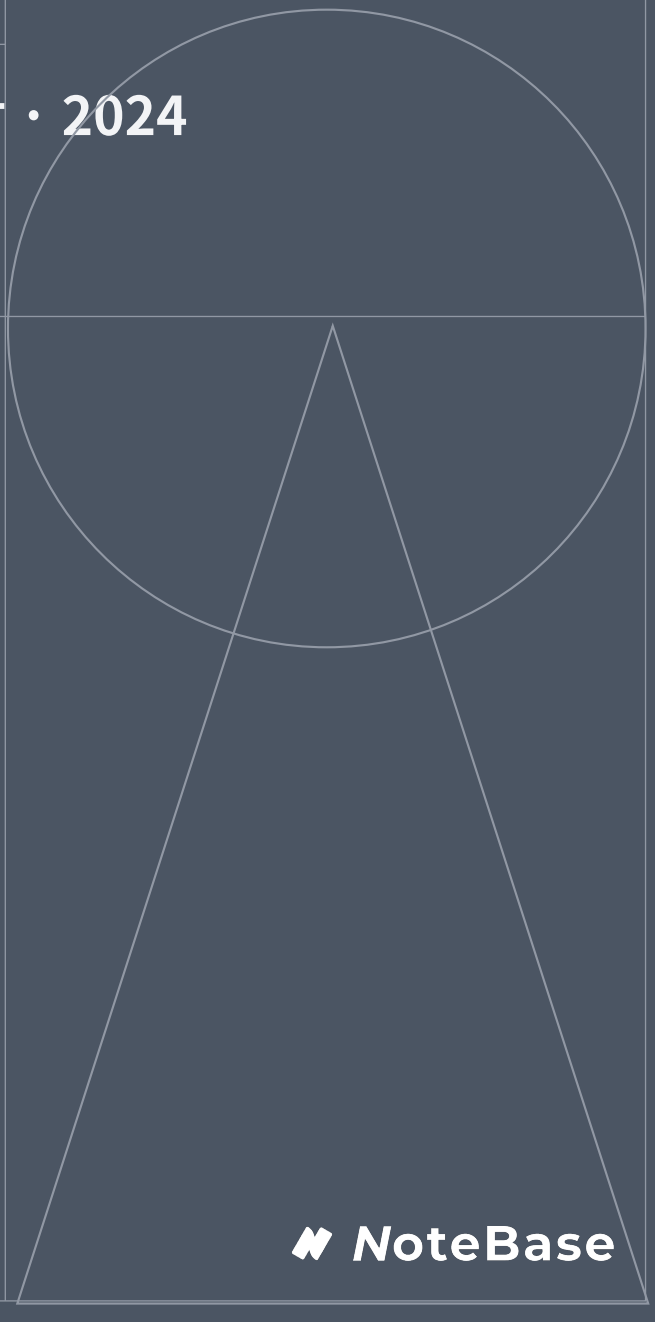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국가직/9급 · 회계학 · 2024



NoteBas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국가직/9급 · 회계학 · 2024

공무원/국가직/9급 · 회계학 · 2024

문 1. 20x1년 4월 1일 (주)한국은 1년 만기 정기예금(연 이자율 6%)에 현금을 예치하였으며, 만기일에 원금과 이자를 수취한다. (주)한국이 결산일에 이자에 대한 회계처리를 누락한 경우, 20x1년 말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은 것은?

① 부채에 영향은 없고, 당기순이익이 과대계상된다.

② 자산과 당기순이익이 모두 과소계상된다.

③ 자산은 과대계상되고, 당기순이익은 과소계상된다.

④ 자산과 자본은 과소계상되고, 당기순이익은 과대계상된다.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결산일까지 발생한 이자는 아직 받지 않았더라도 **미수수익과 이자수익**으로 인식해야 한다. 이를 누락하면 받을 이자와 수익이 빠지므로 **자산과 당기순이익이 모두 과소계상**된다.

핵심 풀이

발생주의에서는 현금 수취 시점이 아니라 수익이 발생한 기간에 수익을 인식한다. 20x1년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9개월 동안 발생한 예금이자는 만기일에 받더라도 20x1년의 이자수익이다. 결산일에는 **차변에 미수수익, 대변에 이자수익**을 기록한다. 미수수익은 이미 발생했지만 아직 받지 않은 수익에 대한 채권이므로 자산이다.

이 결산분개를 누락하면 미수수익이 빠져 자산이 과소계상되고, 이자수익이 빠져 당기순이익도 과소계상된다. 따라서 누락 시 **자산과 당기순이익이 모두 과소계상**된다. 당기순이익이 적게 반영되므로 자본도 과소계상되지만, 부채에는 영향이 없다. 이자는 받을 금액이므로 자산을 늘려야 하며, 수익 누락은 이익을 줄이는 오류이므로 자산이나 당기순이익이 과대계상되는 것은 아니다.

NoteBase

문 2. 재무제표 표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경영진은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가능성을 평가해야 한다.

② 기업은 현금흐름 정보를 제외하고는 발생기준 회계를 사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③ 당기 재무제표를 이해하는 데 목적적합하다면 서술형 정보의 경우에도 비교정보를 포함한다.

④ 회계기준에서 표시방법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재무제표의 표시와 분류는 매기 동일하여야 한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④의 '회계기준에서 표시방법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유지해야 한다는 부분이 잘못되었다. 표시와 분류는 매기 일관되게 유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회계기준이 변경을 요구하면 그 요구에 따라 변경해야 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계속기업은 기업이 예측 가능한 미래에도 영업을 계속한다는 전제이다. 경영진은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계속기업으로 존속할 수 있는지 평가**해야 한다. 기업을 청산하거나 영업을 중단할 의도가 있거나 그 외에 현실적인 대안이 없다면 계속기업 기준으로 작성하지 않는다.

② O: 발생기준 회계는 현금을 주고받은 시점만으로 거래를 기록하지 않고, 거래나 사건이 발생하여 자산·부채·수익·비용 등의 인식 요건을 충족한 때에 반영하는 방식이다. 기업은 **현금흐름 정보를 제외하고 발생기준**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현금흐름 정보는 실제 현금의 유입과 유출을 보여 주므로 이 원칙에서 제외된다.

③ O: 비교정보는 당기와 전기를 비교하여 재무제표를 이해하도록 돕는 정보이다. 금액뿐 아니라 **당기 재무제표의 이해에 목적적합한 서술형 정보**도 비교정보에 포함한다. 예를 들어 전기에 해결되지 않은 소송이 당기에도 계속된다면, 전기의 불확실성과 당기의 진행 상황을 함께 설명하는 것이 이해에 도움이 된다.

④ X: 재무제표 항목의 표시와 분류를 매기 동일하게 유지하는 것은 기간 간 비교가능성을 위한 원칙이다. 그러나 **회계기준이 표시방법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변경해야 한다**. 따라서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동일하여야 한다'는 부분은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요구에 따라 변경한다'로 고쳐야 한다.

NoteBase

문 3. ㈜한국의 재무상태표에 계상된 기초 선수임대료는 ₩16,000이고 기말 선수임대료는 ₩24,000이다. 당기에 현금으로 수취한 임대료가 ₩50,000인 경우, 당기 임대료수익은?

① ₩42,000

② ₩50,000

③ ₩58,000

④ ₩66,000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선수임대료의 **순증가액 8,000원**만큼 현금 수취액이 당기 수익보다 크다. 따라서 당기 임대료수익은 50,000 − 8,000 = 42,000원이다.

계산 과정

선수임대료는 임대료를 미리 받았지만 아직 임대용역을 제공하지 않아 부채로 남아 있는 금액이다. 임대료수익은 **현금을 받은 시점이 아니라 임대용역을 제공한 기간**에 인식한다.

기초 선수임대료 16,000원에 당기 현금 수취액 50,000원을 더하면 66,000원이다. 이는 이전에 받은 금액 중 기초까지 수익으로 인식하지 않은 금액과 당기에 새로 받은 금액을 합한 것으로, 전부가 당기 수익은 아니다.

이 중 기말에도 선수임대료로 남아 있는 24,000원은 **아직 수익으로 인식하지 않은 금액**이므로 차감한다. 당기 임대료수익은 16,000 + 50,000 − 24,000 = 42,000원으로, ①의 금액과 일치한다.

NoteBase

문 4. 사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채발행 시 시장이자율이 액면이자율보다 높은 경우 할인발행된다.

② 사채를 할인발행한 경우 매년 인식할 이자비용은 증가한다.

③ 사채할증발행차금 잔액은 매년 감소한다.

④ 사채할인발행차금 상각액은 매년 감소한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유효이자율법에서 할인발행한 사채는 장부금액이 커지면서 이자비용도 증가한다. 지급이자는 일정하므로, 이자비용과 지급이자의 차이인 **사채할인발행차금 상각액은 매년 증가**한다.

선지별 해설

이 문항은 매년 같은 금액의 이자를 지급하고 만기에 원금을 일시 상환하는 사채에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는 경우이다. 이자비용은 기초 장부금액에 발행 시의 시장이자율인 유효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하고, 지급이자는 액면금액에 액면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① O: 시장이자율이 액면이자율보다 높으면 약정된 이자만으로는 투자자가 요구하는 수익률을 충족하지 못한다. 따라서 미래의 이자와 원금을 시장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는 액면금액보다 작아져 **액면금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발행**된다.

② O: 할인발행 시 최초 장부금액은 액면금액보다 작다. 이자비용이 지급이자보다 큰 만큼 할인발행차금을 상각하여 장부금액에 더하므로, 장부금액은 만기에 액면금액에 도달할 때까지 증가한다. 일정한 유효이자율을 **증가하는 기초 장부금액**에 곱하므로 매년 인식하는 이자비용도 증가한다.

③ O: 할증발행 시 장부금액은 액면금액보다 크고, 지급이자는 유효이자율로 계산한 이자비용보다 크다. 그 차이만큼 할증발행차금을 상각하여 장부금액에서 차감한다. 따라서 **미상각 할증발행차금 잔액은 매년 감소**하고 만기에는 0이 된다.

④ X: 사채할인발행차금 상각액은 이자비용에서 지급이자를 뺀 금액이다. 할인발행 사채의 이자비용은 매년 증가하지만 지급이자는 일정하므로, 상각액은 매년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매년 증가**한다. 상각이 진행될수록 감소하는 것은 할인발행차금의 미상각 잔액이다.

NoteBase

문 5. 무형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무형자산의 회계처리는 내용연수에 따라 다르다.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은 상각하고,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은 상각하지 아니한다.

② 무형자산을 창출하기 위한 내부 프로젝트를 연구단계와 개발단계로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프로젝트에서 발생한 지출은 모두 개발단계에서 발생한 것으로 본다.

③ 무형자산의 내용연수는 자산의 내용연수를 추정하는 시점에 평가된 표준적인 성능수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출을 초과하는 계획된 미래지출이 예상되는 경우 비한정으로 판단한다.

④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은 그 자산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상각을 중지한다.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은 상각대상금액을 내용연수에 걸쳐 배분하지만,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은 상각하지 않는다**. 비한정이란 순현금유입이 발생할 기간에 예측 가능한 제한이 없다는 뜻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내용연수가 유한하면 경제적 효익을 얻을 기간을 추정할 수 있으므로, 취득원가 등에서 잔존가치를 뺀 상각대상금액을 그 기간에 걸쳐 체계적으로 배분한다. 내용연수가 비한정이면 **예측 가능한 순현금유입 기간의 제한이 없으므로 상각하지 않는다**. 다만 매년 손상검사를 하며, 손상징후가 있을 때에도 손상검사를 한다.

② X: 연구단계와 개발단계를 구분할 수 없다면 지출 전부를 **연구단계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아 발생 시 비용으로 인식한다**. 연구단계에서는 미래경제적효익을 창출할 무형자산이 존재함을 입증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개발단계 지출도 자산 인식요건을 충족해야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다.

③ X: 내용연수를 비한정으로 판단할 때에는 **현재의 표준적인 성능수준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지출을 초과하는 미래지출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 내용연수는 해당 성능수준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지출과 이를 감당할 기업의 능력·의도를 반영하여 판단한다. 추가적인 성능개선 지출을 계획했다는 사실만으로 내용연수를 비한정으로 볼 수 없다.

④ X: **사용을 중단했다는 이유만으로 상각을 중지하지 않는다**.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의 상각은 매각예정으로 분류하는 날과 자산을 제거하는 날 중 이른 날에 중지한다. 이미 전액 상각했거나 매각예정 처분자산집단에 포함된 경우에도 상각을 계속하지 않는다.

NoteBase

문 6. 재무제표 요소의 측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역사적 원가 측정치는 적어도 부분적으로 자산, 부채 및 관련 수익과 비용을 발생시키는 거래나 그 밖의 사건의 가격에서 도출된 정보를 사용하여 자산, 부채 및 관련 수익과 비용에 관한 화폐적 정보를 제공한다.

② 현행가치 측정치는 측정일의 조건을 반영하기 위해 갱신된 정보를 사용하여 자산, 부채 및 관련 수익과 비용의 화폐적 정보를 제공한다.

③ 공정가치는 측정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입할 때 지급하거나 부채를 차입할 때 수취하게 될 가격이다.

④ 자산의 현행원가는 측정일 현재 동등한 자산의 원가로서 측정일에 지급할 대가와 그 날에 발생할 거래원가를 포함한다.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공정가치는 측정일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할 때 수취**하거나 부채를 **이전할 때 지급**하는 가격이다. ③의 자산 매입·부채 차입은 자산을 취득하거나 부채를 발생시키는 유입거래의 관점이므로 공정가치의 정의와 다르다.

선지별 해설

① O: 역사적 원가는 자산이나 부채를 발생시킨 **거래 당시의 가격**을 출발점으로 삼는 측정기준이다. 따라서 그 거래나 그 밖의 사건의 가격에서 적어도 부분적으로 도출된 정보를 사용하여 자산·부채와 관련 수익·비용을 화폐금액으로 나타낸다.

② O: 현행가치는 과거 거래 당시의 조건에 머무르지 않고 **측정일의 조건을 반영하도록 갱신한 정보**로 측정한다. 이에 따라 이전 측정일 이후의 현금흐름 추정치나 그 밖의 관련 요인 변화를 자산·부채와 관련 수익·비용의 측정에 반영한다.

③ X: 공정가치는 측정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할 때 수취하거나 부채를 이전할 때 지급하게 될 가격이다. 즉, 보유 자산을 내보내거나 부담 중인 부채를 넘기는 **유출가치**이다. 선지의 '자산을 매입할 때 지급'은 '자산을 매도할 때 수취'로, '부채를 차입할 때 수취'는 '부채를 이전할 때 지급'으로 고쳐야 한다.

④ O: 자산의 현행원가는 측정일에 동등한 자산을 취득한다고 할 때의 원가이다. 따라서 **측정일에 지급할 대가와 그날 발생할 거래원가**를 합한 금액이다. 역사적 원가와 마찬가지로 취득 관점의 유입가치이지만, 과거 취득일이 아니라 측정일 현재의 조건을 반영한다.

NoteBase

문 7. 재무상태표와 포괄손익계산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기업이 재무상태표에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 그리고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구분하여 표시하는 경우,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은 유동자산(부채)으로 분류하지 아니한다.

② 영업주기는 영업활동을 위한 자산의 취득시점부터 그 자산이 현금이나 현금성자산으로 실현되는 시점까지 소요되는 기간이다.

③ 수익과 비용의 어느 항목도 당기손익과 기타포괄손익을 표시하는 보고서 또는 주석에 특별손익 항목으로 표시할 수 없다.

④ 기타포괄손익의 구성요소와 관련된 재분류조정은 공시할 필요가 없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금액을 당기손익으로 옮기는 **재분류조정은 공시해야 한다**. 포괄손익계산서 본문이나 주석에 표시할 수 있다.

선지별 해설

① O: 자산과 부채를 유동·비유동으로 구분하여 표시하는 경우, 이연법인세자산은 비유동자산으로, 이연법인세부채는 비유동부채로 분류한다. 회수나 결제가 12개월 이내에 예상되더라도 **유동항목으로 분류하지 않는다**.

② O: 영업주기는 영업활동에 필요한 자산을 취득한 때부터 그 자산이 현금이나 현금성자산으로 실현될 때까지의 기간이다. 상품을 외상으로 판매했다면 판매 시점이 아니라 **매출채권을 현금으로 회수하는 시점까지** 포함한다.

③ O: 수익과 비용을 **특별손익 항목으로 표시하는 것은 금지**된다. 이는 당기손익과 기타포괄손익을 표시하는 보고서뿐 아니라 주석에도 적용되므로, 비경상적인 항목이라는 이유로 주석에서 특별손익으로 표시할 수도 없다.

④ X: 기타포괄손익의 구성요소와 관련된 재분류조정은 **공시해야 한다**. 재분류조정은 당기나 과거 기간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금액을 당기의 당기손익으로 옮기는 조정이다. 예를 들어, 과거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이익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면 해당 금액을 기타포괄손익에서 차감하여 총포괄손익에 이중으로 포함되지 않게 한다. 재분류조정은 포괄손익계산서 본문이나 주석에 표시할 수 있으며, 주석에 공시하는 경우 본문에는 재분류조정 후의 기타포괄손익 항목을 표시한다.

NoteBase

문 8. 재고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재고자산은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취득원가는 매입원가, 전환원가 및 재고자산을 현재의 장소에 현재의 상태로 이르게 하는 데 발생한 기타 원가 모두를 포함한다.

② 재고자산을 순실현가능가치로 감액하는 저가법은 항목별로 적용한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서로 비슷하거나 관련된 항목들을 통합하여 적용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

③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가 상승한 증거가 명백한 경우 최초의 장부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평가손실을 환입한다. 그 결과 새로운 장부금액은 취득원가와 수정된 순실현가능가치 중 큰 금액이 된다.

④ 순실현가능가치의 상승으로 인한 재고자산 평가손실의 환입은 환입이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된 재고자산 금액의 차감액으로 인식한다.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③의 '큰 금액'은 **'낮은 금액'**으로 고쳐야 한다. 평가손실을 환입한 뒤에도 장부금액은 취득원가와 수정된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이며, **최초 평가손실을 한도로** 환입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재고자산은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한다. 순실현가능가치는 정상적인 영업과정의 예상 판매가격에서 추가 완성원가와 판매에 필요한 원가를 차감한 금액이다. 취득원가에는 매입원가, 원재료를 제품으로 만드는 전환원가, 현재의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기타 원가가 포함된다.

② O: 저가법은 **항목별 적용이 원칙**이지만, 비슷하거나 관련된 항목은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같은 제품군에 속하고 용도와 생산·판매 지역이 유사하며 개별 평가가 실무적으로 어려운 항목들이 이에 해당한다. 단순히 제품이라는 같은 재고자산 분류에 속한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묶어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③ X: 순실현가능가치의 상승에 관한 명백한 증거가 있으면 이전에 인식한 평가손실을 환입하되, 환입액은 최초 평가손실을 초과할 수 없다. 환입 후 장부금액도 **취득원가와 수정된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이다. 가령 취득원가 100원의 재고자산을 70원으로 감액한 뒤 순실현가능가치가 90원으로 회복되면 20원을 환입하여 장부금액은 90원이 된다. 순실현가능가치가 120원까지 상승해도 최초 평가손실 30원만 환입할 수 있으므로 장부금액은 100원에 그친다.

④ O: 평가손실을 인식할 때는 재고자산 장부금액을 줄이고 비용을 인식한다. 이후 순실현가능가치가 상승하여 평가손실을 환입하면, **환입이 발생한 기간의 재고자산 관련 비용을 차감**한다. 이는 이전에 비용으로 처리했던 평가손실의 회복을 반영하는 것이다.

NoteBase

문 9. 유형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유형자산의 일상적인 수선·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해당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여 인식하지 아니한다.

② 안전 또는 환경상의 이유로 취득하는 유형자산은 다른 자산에서 미래경제적 효익을 얻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도 그 자체로는 미래경제적 효익을 얻을 수 없으므로 자산으로 인식하지 아니한다.

③ 유형자산으로 인식되기 위해서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야 한다.

④ 유형자산으로 인식되기 위해서는 자산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안전·환경 설비는 자체적으로 수익을 창출하지 않더라도 **다른 자산에서 미래경제적 효익을 얻는 데 필요**하면 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다. 따라서 그 자체의 직접적인 효익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자산 인식을 배제할 수 없다.

선지별 해설

① O: 일상적인 수선·유지 원가는 유형자산을 평소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지출이므로 장부금액에 더하지 않고 **발생한 기간의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통상적인 수선에 쓰이는 인건비·소모품비 등이 이에 해당한다.

② X: 안전 또는 환경상의 이유로 취득한 설비는 직접적인 경제적 효익을 늘리지 않더라도 **다른 자산의 경제적 효익을 얻는 데 필요**하면 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환경 요건을 충족하는 설비가 있어야 제품을 생산·판매할 수 있다면, 그 설비는 관련 생산자산의 효익 실현을 가능하게 한다. 따라서 원가의 신뢰성 있는 측정 등 인식요건을 충족하면 유형자산으로 인식한다.

③ O: 유형자산의 인식요건 중 하나는 **미래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자산을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으로 기업이 효익을 얻을 가능성이 높아야 하며, 효익의 유입이 반드시 확정되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④ O: 유형자산으로 인식하려면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미래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높더라도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다면 인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NoteBase

문 10. 자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기업의 자산에서 모든 부채를 차감한 후의 잔여지분이다.

② 자본을 투자된 화폐액 또는 투자된 구매력으로 보는 재무적 개념 하에서 자본은 기업의 순자산이나 지분과 동의어로 사용된다.

③ 재무제표이용자들이 주로 명목상의 투하자본이나 투하자본의 구매력 유지에 관심이 있다면 재무적 개념의 자본을 채택하여야 한다.

④ 자본개념을 실무적으로 적용하는 데 측정의 어려움이 있다면 선택된 자본개념에 따라 이익의 결정 목표가 무엇인지 알 수 없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자본개념을 실무에 적용할 때 측정이 어렵더라도, 선택된 자본개념은 **이익을 결정할 때 달성해야 할 목표**를 제시한다. 측정의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로 그 목표를 알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선지별 해설

① O: 자본은 기업의 자산에서 모든 부채를 차감한 뒤 남는 **잔여지분**이다. 자산 중 채권자 등에 대한 의무인 부채를 제외한 부분이므로 순자산이라고도 한다.

② O: 재무적 자본개념은 자본을 **투자된 화폐액 또는 투자된 구매력**으로 본다. 이 관점에서 자본은 기업의 순자산이나 지분과 같은 뜻으로 사용된다. 생산능력이나 조업능력으로 자본을 파악하는 실물적 자본개념과 구별된다.

③ O: 적절한 자본개념은 **재무제표이용자의 정보 요구**를 기준으로 선택한다. 이용자가 명목상의 투하자본이나 투하자본의 구매력 유지에 주로 관심을 두면 재무적 자본개념을 채택한다. 반면 기업의 조업능력 유지가 주된 관심이면 실물적 자본개념을 채택한다.

④ X: 자본개념을 실무적으로 적용할 때 측정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선택된 자본개념은 **이익 결정의 목표를 제시한다**. 재무적 자본개념에서는 투자된 화폐액이나 구매력의 유지를, 실물적 자본개념에서는 생산능력의 유지를 기준으로 삼는다. 소유주와의 출자·분배 거래를 제외하고 이러한 자본유지에 필요한 수준을 초과하는 부분을 이익으로 파악한다. 따라서 '이익의 결정 목표가 무엇인지 알 수 없다'는 표현은 '이익을 결정할 때 달성해야 할 목표를 알 수 있다'로 고쳐야 한다.

NoteBase

문 11. 20×1년 초 (주)한국은 거래처에 상품을 판매하고 액면금액 ₩100,000인 무이자부어음(6개월 만기)을 수취하였다. (주)한국은 3개월간 해당 어음을 보유한 후 거래은행에 연 10%로 할인받았다. (주)한국이 받을어음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거래은행에 이전하였다면 받을어음 할인 시점에 인식할 매출채권처분손실은? (단, 이자는 월할 계산한다)

① ₩0

② ₩2,500

③ ₩3,000

④ ₩5,000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은행 할인료는 어음을 보유한 기간이 아니라 **할인일부터 만기까지 남은 3개월**에 대해 계산한다.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이 이전되어 받을어음을 제거하므로, 장부금액 100,000원과 수령액 97,500원의 차액인 2,500원을 매출채권처분손실로 인식한다.

계산 과정

1. 받을어음의 제거: 받을어음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은행에 이전**하였으므로 받을어음을 장부에서 제거하고, 장부금액과 수령액의 차이를 처분손익으로 인식한다. 무이자부어음이므로 만기금액은 액면금액인 100,000원이며, 할인 시 제거할 받을어음의 장부금액도 100,000원이다.

2. 할인기간: 전체 만기 6개월 중 이미 3개월을 보유하였으므로 만기까지 남은 기간은 6개월 − 3개월 = 3개월이다. 은행은 만기에 받을 돈을 미리 지급하므로 **남은 3개월**에 대한 할인료를 차감한다.

3. 은행 할인료와 수령액: 할인료는 만기금액에 연 할인율과 남은 기간을 곱하여 계산한다. 이자는 월할 계산하므로 3개월은 1년의 3/12에 해당한다. 할인료는 $100{,}000 \times 10\% \times \frac{3}{12} = 2{,}500$원이고, 실제 수령액은 100,000 − 2,500 = 97,500원이다.

4. 매출채권처분손실: 제거하는 받을어음의 장부금액이 수령액보다 크므로 그 차액은 손실이다. 매출채권처분손실은 100,000 − 97,500 = 2,500원으로, ②의 금액에 해당한다.

NoteBase

문 12.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에서 계약의 식별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계약 당사자들이 계약을 승인하고 각자의 의무를 수행하기로 확약한다.

② 계약의 결과로 기업의 미래 현금흐름의 위험, 시기, 금액이 변동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③ 이전할 재화나 용역과 관련된 각 당사자의 권리와 지급조건을 식별할 수 있다.

④ 고객에게 이전할 재화나 용역에 대하여 받을 권리를 갖게 될 대가의 회수 가능성이 높다.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계약에 상업적 실질이 있으려면 기업의 미래 현금흐름의 **위험·시기·금액 중 하나 이상이 변동**할 것으로 예상되어야 한다. '변동되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은 이 요건과 반대이다.

선지별 해설

고객과의 계약을 이 기준서에 따라 회계처리하려면 계약의 승인과 이행 확약, 권리의 식별, 지급조건의 식별, 상업적 실질, 대가의 높은 회수 가능성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① O: 계약 당사자들이 계약을 승인하고 **각자의 의무를 수행하기로 확약**해야 한다. 이는 당사자들이 계약 내용에 동의하고 그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의사가 있음을 확인하는 요건이다.

② X: 계약의 식별기준에는 **상업적 실질**이 포함된다. 이는 계약의 결과로 기업의 미래 현금흐름의 위험, 시기 또는 금액이 변동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뜻이다. 따라서 '변동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를 '변동될 것으로 예상된다'로 고쳐야 한다. 세 요소가 모두 변동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③ O: 이전할 재화나 용역에 관한 **각 당사자의 권리와 지급조건을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 권리를 식별해야 무엇을 제공하고 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있고, 지급조건을 식별해야 그 대가를 언제 어떤 조건으로 지급하는지 알 수 있다. 선지는 두 식별요건을 함께 제시한 것이다.

④ O: 재화나 용역을 고객에게 이전하고 받을 권리를 갖게 될 대가의 **회수 가능성이 높아야** 한다. 회수 가능성을 평가할 때에는 대가의 지급기일에 고객이 그 금액을 지급할 능력과 의도가 있는지를 고려한다. 계약상 대가가 정해져 있다는 사실만으로 이 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니다.

NoteBase

문 13. 다음 자료를 이용한 당기 매입채무 현금지급액은?

◯ 당기 매출액 ₩200
◯ 기초 상품재고액 ₩30
◯ 기말 상품재고액 ₩20
◯ 기초 매입채무 ₩50
◯ 기말 매입채무 ₩60
◯ 매출총이익률 20%
◯ 당기 매입액 중 외상매입 비율 60%

① ₩80
② ₩90
③ ₩140
④ ₩150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당기 매입액 150원 중 **외상매입액은 90원**이다. 매입채무가 기초보다 10원 늘었으므로, 외상매입액 중 지급하지 않은 증가분을 뺀 **80원**이 매입채무 현금지급액이다.

NoteBase

계산 과정

1. 매출원가 계산: 매출총이익률은 매출액에서 매출총이익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매출총이익은 200 × 20% = 40원이고, 매출원가는 매출액에서 매출총이익을 뺀 200 − 40 = 160원이다.

2. 당기 매입액 계산: 기초 상품재고액에 당기 매입액을 더하면 판매할 수 있었던 상품의 총원가가 된다. 여기서 기말 상품재고액을 빼면 매출원가가 되므로, 당기 매입액은 매출원가에 기말 상품재고액을 더하고 기초 상품재고액을 뺀 금액이다. 따라서 160 + 20 − 30 = 150원이다.

3. 외상매입액 계산: 당기 매입액 중 60%가 외상매입이므로, 새로 발생한 매입채무는 150 × 60% = 90원이다. 나머지 현금매입액 60원은 **매입채무를 거치지 않으므로** 매입채무 현금지급액 계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4. 매입채무 현금지급액 계산: 기초 매입채무에 당기 외상매입액을 더한 금액 중 지급하지 않고 남은 것이 기말 매입채무이다. 따라서 현금지급액은 50 + 90 − 60 = 80원이다. 매입채무가 10원 증가했다는 것은 당기 외상매입액보다 **현금지급액이 10원 적다**는 뜻이다.

당기 매입채무 현금지급액은 80원으로, ①의 금액과 일치한다.

NoteBase

문 14. (주)한국은 종합원가계산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가중평균법을 적용하고 있다. 다음의 자료를 이용한 완성품원가는?

◯ 기초 재공품 수량: 300단위(완성도: 직접재료원가 100%, 가공원가 50%)
◯ 기초 재공품 원가: 직접재료원가 ₩5,000, 가공원가 ₩4,000
◯ 당기 착수량: 2,200단위
◯ 당기 투입원가: 직접재료원가 ₩20,000, 가공원가 ₩40,000
◯ 기말 재공품 수량: 500단위(완성도: 직접재료원가 100%, 가공원가 40%)
◯ 직접재료는 생산 착수 시에 투입되며, 가공원가는 공정 전반에 걸쳐 균일하게 발생한다.

① ₩60,000
② ₩62,000
③ ₩64,000
④ ₩65,000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가중평균법은 **기초 재공품원가와 당기 투입원가를 합산**하여 완성품환산량에 배분한다. 직접재료원가와 가공원가의 환산량 단위당 원가는 각각 10원과 20원이므로, 완성품 2,000단위의 원가는 60,000원이다.

NoteBase

계산 과정

가중평균법은 기초 재공품에 이미 투입된 원가와 당기 투입원가를 합쳐 평균 원가를 구한다. 완성품환산량은 미완성품에 투입된 작업량을 완성품 수량으로 환산한 것으로, 원가요소별로 완성품 수량에 기말 재공품 수량 × 완성도를 더하여 계산한다. 이때 **기초 재공품의 전기 작업량을 차감하지 않는다**. 따라서 기초 재공품의 직접재료 완성도 100%와 가공 완성도 50%를 따로 차감할 필요가 없다.

1. 완성품 수량
기초 재공품 300단위와 당기 착수량 2,200단위 중 기말에 남은 500단위를 제외하면 완성품 수량은 300 + 2,200 − 500 = 2,000단위이다.

2. 직접재료원가
직접재료는 **생산 착수 시 전량 투입**되므로 기말 재공품도 직접재료에 대해서는 100% 완성된 상태이다.
직접재료의 완성품환산량은 2,000 + 500 × 100% = 2,500단위이다. 배분할 직접재료원가는 기초 원가와 당기 원가를 더한 5,000 + 20,000 = 25,000원이다. 따라서 환산량 단위당 직접재료원가는 $\frac{25,000}{2,500}$ = 10원이다.

3. 가공원가
가공원가는 공정 전반에 걸쳐 균일하게 발생하므로 기말 재공품 500단위에는 **완성도 40%에 해당하는 가공 작업량**만 반영한다. 이는 완성품 200단위를 가공한 작업량과 같으므로, 가공원가의 완성품환산량은 2,000 + 500 × 40% = 2,200단위이다. 배분할 가공원가는 4,000 + 40,000 = 44,000원이며, 환산량 단위당 가공원가는 $\frac{44,000}{2,200}$ = 20원이다.

4. 완성품원가
완성품은 직접재료와 가공 작업이 모두 100% 완료되었으므로 완성품 한 단위에 두 원가를 모두 배분한다.
완성품 단위당 원가는 10 + 20 = 30원이고, 완성품원가는 2,000 × 30 = 60,000원으로 ①의 금액과 일치한다.

NoteBase

문 15. (주)한국은 A제품과 B제품을 생산·판매하고 있다. 20x1년도 연간 고정원가 총액이 ₩3,000이고, 두 제품에 대한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연간손익분기점에서 A제품의 판매수량은? (단, 매출배합은 항상 일정하게 유지된다)

	A제품	B제품
판매단가	₩ 90	₩ 140
단위당변동원가	₩ 70	₩ 100
판매량	80개	20개

① 80개

② 100개

③ 110개

④ 120개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매출배합 A:B = 4:1을 유지하면 A제품 4개와 B제품 1개를 묶은 한 묶음의 공헌이익은 120원이다. 고정원가 3,000원을 충당하려면 25묶음을 판매해야 하므로 **A제품의 판매수량은 100개**이다.

NoteBase

계산 과정

손익분기점은 매출액에서 변동원가를 뺀 총공헌이익이 고정원가와 같아져 이익이 0이 되는 판매수준이다. 20x1년의 연간 고정원가는 3,000원이므로 두 제품의 공헌이익 합계가 이 금액을 충당해야 한다.

A제품의 단위당 공헌이익: 판매단가에서 단위당 변동원가를 빼면 90 − 70 = 20원이다. A제품을 1개 판매할 때마다 고정원가 회수에 20원이 기여한다.

B제품의 단위당 공헌이익: 140 − 100 = 40원이다. B제품을 1개 판매할 때마다 고정원가 회수에 40원이 기여한다.

매출배합을 반영한 묶음: 자료의 판매량 비율은 A:B = 80:20 = 4:1이다. **매출배합이 일정**하므로 A제품 4개와 B제품 1개를 한 묶음으로 보면, 한 묶음의 공헌이익은 $20 \times 4 + 40 \times 1 = 120$원이다.

손익분기점 판매수량: 고정원가를 묶음당 공헌이익으로 나누면 필요한 묶음 수는 $\frac{3{,}000}{120} = 25$묶음이다. 한 묶음에 A제품이 4개 들어 있으므로 A제품의 연간 판매수량은 $25 \times 4 = 100$개로, ②의 100개에 해당한다.

NoteBase

문 16. 변동원가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의사결정을 위한 내부보고목적으로 사용할 때 장점이 있다.

② 변동제조원가와 변동판매관리비 등 조업도에 따라 변동하는 원가는 제품원가로 분류한다.

③ 전부원가계산에 비해 제품원가를 과소평가하게 된다.

④ 고정제조간접원가는 기간비용 처리되므로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에 어긋난다.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변동원가계산에서는 **변동제조원가만 제품원가**에 포함한다. 변동판매관리비는 조업도에 따라 변하더라도 제조활동에서 발생한 원가가 아니므로 **기간비용**으로 처리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변동원가계산은 원가를 변동원가와 고정원가로 구분하여, 매출액에서 변동비를 차감한 **공헌이익**을 보여준다. 공헌이익은 고정비를 회수하고 이익을 창출하는 데 기여하는 금액이므로, 판매량 변화에 따른 이익 분석 등 내부 의사결정에 유용하다.

② X: 제품원가에 포함하는 것은 **변동제조원가**이다. 변동판매관리비는 판매·관리활동에서 발생하므로 변동원가이더라도 제품원가에 포함하지 않고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처리한다. 따라서 '조업도에 따라 변동하는 원가는 제품원가'라는 설명은 '변동제조원가는 제품원가이고, 변동판매관리비는 기간비용'으로 고쳐야 한다.

③ O: 전부원가계산은 변동제조원가와 고정제조간접원가를 모두 제품원가에 포함한다. 변동원가계산은 **고정제조간접원가를 제품원가에서 제외**하므로, 전부원가계산을 기준으로 보면 그 배부액만큼 제품원가가 낮게 평가된다.

④ O: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은 수익을 얻기 위해 발생한 원가를 관련 수익이 인식되는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변동원가계산은 고정제조간접원가를 **제품의 판매 여부와 관계없이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처리한다. 따라서 아직 팔리지 않은 제품의 제조에 든 고정제조간접원가도 즉시 비용이 되어, 그 제품의 판매수익과 인식 시기가 어긋날 수 있다. 이는 제조원가를 제품의 판매수익에 대응시킨다는 관점에서 변동원가계산의 한계이다.

NoteBase

문 17. 원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매몰원가란 이미 발생한 과거원가로, 현재 또는 미래의 의사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원가이다.

② 조업도 수준이 변화함에 따라 총변동원가는 일정한 형태로 변화하지만 총고정원가는 관련 범위 내에서 일정한 금액으로 발생한다.

③ 관련원가란 선택 가능한 두 가지 이상의 대안 간에 차이가 있었던 과거원가를 말하며 의사결정과 직접 관련이 있는 원가이다.

④ 직접재료원가와 직접노무원가는 기초원가이며, 직접노무원가와 제조간접원가는 가공원가이다.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③의 '차이가 있었던 과거원가'는 **대안 간에 차이가 나는 미래원가**로 고쳐야 한다. 관련원가는 앞으로 발생할 원가이면서 어떤 대안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원가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매몰원가는 이미 발생하여 현재의 선택으로 **회수하거나 변경할 수 없는** 과거원가이다. 어느 대안을 선택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금액은 달라지지 않으므로, 현재 또는 미래의 의사결정에서 대안을 비교하는 원가에 포함하지 않는다.

② O: 변동원가는 생산량 등 조업도가 변하면 총액도 함께 변하는 원가이다. 고정원가는 설비 규모 등 기존의 원가행태가 유지되는 **관련 범위 내에서 총액이 일정하다**. 따라서 같은 범위에서 생산량이 늘어도 총고정원가는 변하지 않지만, 제품 한 단위당 고정원가는 줄어든다.

③ X: 관련원가는 의사결정으로 달라질 수 있는 **대안 간에 차이가 나는 미래원가**이다. 선지의 '차이가 있었던 과거원가'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과거에 이미 발생한 원가는 현재의 선택으로 바꿀 수 없으며, 앞으로 발생할 원가라도 모든 대안에서 금액이 같다면 대안 선택의 기준이 되는 관련원가가 아니다.

④ O: 기초원가는 제품에 직접 추적할 수 있는 **직접재료원가와 직접노무원가의 합계**이다. 가공원가는 재료를 제품으로 전환하는 데 드는 원가로, 직접노무원가와 제조간접원가를 합한 금액이다. 직접노무원가는 두 분류에 모두 포함되지만, 직접재료원가는 가공원가에 포함되지 않는다.

NoteBase

문 18. 다음은 중앙관서 A의 기업특별회계(사업형회계) 프로그램 관련 자료이다. 중앙관서 A의 재정운영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위: ₩)

세출		재무계정과목	금액	비고
프로그램/단위사업	목			
물자 및 시설조달	연구개발비	연구개발비	30,000	프로그램총원가
	–	감가상각비	1,000	프로그램총원가
전자조달운영	인건비	인건비	500	프로그램총원가
–	–	감가상각비	300	비배분비용
	–	자산처분손실	200	비배분비용
조달행정지원	인건비	인건비	40,000	행정운영성경비

세입(목)	재무계정과목	금액	관련 프로그램	비고
내자구매사업수입	재화및용역제공수익	20,000	물자 및 시설조달	프로그램수익
토지대여료	재화및용역제공수익	1,000	–	비배분수익
위약금	제재금수익	1,000	–	비교환수익

① 프로그램순원가는 ₩ 11,500이다.

② 관리운영비는 ₩ 40,000이다.

③ 재정운영순원가는 ₩ 51,500이다.

④ 재정운영결과는 ₩ 50,000이다.

정답 3번

①

프로그램순원가는 **프로그램총원가에서 프로그램수익을 뺀 금액**이다. 연구개발비 30,000원, 감가상각비 1,000원, 전자조달운영 인건비 500원을 합한 총원가 31,500원에서 프로그램수익 20,000원을 차감하면 11,500원이다.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25조(중앙관서 또는 기금의 재정운영표)
② 프로그램별 재정운영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구분하여 표시한다.
1. 프로그램순원가: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

https://d2u7om5rih5x7z.cloudfront.net/ox-images/drive-repair/1nRmf_zrOgVvFZDnUTJUBBP1chlvqxN01.webp

NoteBase

②

조달행정지원 인건비 40,000원은 **행정운영 성격의 비용이므로 관리운영비**에 포함한다. 전자조달운영 인건비 500원은 프로그램 수행에 직접 투입된 비용이므로 프로그램총원가에 포함한다.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25조(중앙관서 또는 기금의 재정운영표)
② 프로그램별 재정운영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구분하여 표시한다.
1. 프로그램순원가: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

https://d2u7om5rih5x7z.cloudfront.net/ox-images/drive-repair/1nRmf_zrOgVvFZDnUTJUBBP1chlvqxN01.webp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25조(중앙관서 또는 기금의 재정운영표)
② 프로그램별 재정운영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구분하여 표시한다.
2. 재정운영순원가: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

https://d2u7om5rih5x7z.cloudfront.net/ox-images/drive-repair/1UmjLkFCApPBdrLQyN9CcCsu9QQzQ0dn5.webp

NoteBase

③

재정운영순원가는 **프로그램순원가에 관리운영비와 비배분비용을 더하고 비배분수익을 뺀 금액**이다.
프로그램순원가 11,500원에 관리운영비 40,000원과 비배분비용 500원(감가상각비 300원과 자산처분손실 200원)을 더하고, 비배분수익인 토지대여료 1,000원을 빼면 51,000원이다.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25조(중앙관서 또는 기금의 재정운영표)
② 프로그램별 재정운영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구분하여 표시한다.
1. 프로그램순원가: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

https://d2u7om5rih5x7z.cloudfront.net/ox-images/drive-repair/1nRmf_zrOgVvFZDnUTJUBBP1chlvqxN01.webp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25조(중앙관서 또는 기금의 재정운영표)
② 프로그램별 재정운영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구분하여 표시한다.
2. 재정운영순원가: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

https://d2u7om5rih5x7z.cloudfront.net/ox-images/drive-repair/1UmjLkFCApPBdrLQyN9CcCsu9QQzQ0dn5.webp

NoteBase

④

사업형회계의 재정운영결과는 **재정운영순원가에서 비교환수익 등을 차감**하여 구한다. 재정운영순원가는 11,500 + 40,000 + 300 + 200 − 1,000 = 51,000원이며, 비교환수익인 위약금 1,000원을 차감하면 50,000원이다.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25조(중앙관서 또는 기금의 재정운영표)
② 프로그램별 재정운영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구분하여 표시한다.
1. 프로그램순원가: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

https://d2u7om5rih5x7z.cloudfront.net/ox-images/drive-repair/1nRmf_zrOgVvFZDnUTJUBBP1chlvqxN01.webp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25조(중앙관서 또는 기금의 재정운영표)
② 프로그램별 재정운영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구분하여 표시한다.
2. 재정운영순원가: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

https://d2u7om5rih5x7z.cloudfront.net/ox-images/drive-repair/1UmjLkFCApPBdrLQyN9CcCsu9QQzQ0dn5.webp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25조(중앙관서 또는 기금의 재정운영표)
② 프로그램별 재정운영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구분하여 표시한다.
3. 재정운영결과: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

https://d2u7om5rih5x7z.cloudfront.net/ox-images/drive-repair/1QUBjnYApYQrClv_Q01iIAbxcCRRU_zZq.webp

NoteBase

문 19.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기타 유동자산은 미수수익, 선급금, 선급비용 및 재고자산 등을 말한다.

② 중앙관서 또는 기금의 순자산변동표는 기초순자산, 재정운영결과, 재원의 조달 및 이전, 조정항목, 기말순자산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③ 무주부동산의 취득, 국가 외의 상대방과의 교환 또는 기부채납 등의 방법으로 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 당시의 공정가액을 취득원가로 한다.

④ 국가회계실체 사이에 발생하는 관리전환은 유상거래일 경우에는 자산의 장부가액을 취득원가로 한다.

정답 1, 4번

①

자산은 **금융자산, 유 · 무형자산 및 기타 자산**으로 구분하며, '기타 유동자산'이라는 별도 분류는 두지 않는다.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자산의 정의와 구분)
② 자산은 금융자산, 유 · 무형자산 및 기타 자산으로 구분하여 재정상태표에 표시한다. <개정 2024.7.31>

②

중앙관서 또는 기금의 순자산변동표는 **기초순자산, 재정운영결과, 재원의 조달 및 이전, 조정항목, 기말순자산**의 다섯 항목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52조(순자산변동표)
② 중앙관서 또는 기금의 순자산변동표는 기초순자산, 재정운영결과, 재원의 조달 및 이전, 조정항목, 기말순자산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③

무주부동산 취득, 국가 외의 상대방과의 교환 또는 기부채납 등으로 취득한 자산은 **취득 당시의 공정가액을 취득원가**로 한다.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자산의 평가기준)
① 재정상태표에 표시하는 자산의 가액은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를 기초로 하여 계상(計上)한다. 다만, 무주부동산의 취득, 국가 외의 상대방과의 교환 또는 기부채납 등의 방법으로 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 당시의 공정가액을 취득원가로 한다.

NoteBase

④

국가회계실체 사이의 관리전환은 **유상거래이면 공정가액**을, **무상거래이면 장부가액**을 취득원가로 한다. 선지는 무상거래의 기준을 유상거래에 적용하였다.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자산의 평가기준)
② 국가회계실체 사이에 발생하는 관리전환은 무상거래일 경우에는 자산의 장부가액을 취득원가로 하고, 유상거래일 경우에는 자산의 공정가액을 취득원가로 한다. <개정 2015.12.31>

NoteBase

문 20. 다음 자료를 이용한 매출총이익은? (단, 회전율 계산 시 기초와 기말의 평균값을 이용한다)

◯ 기초 매출채권 ₩450 ◯ 기말 매출채권 ₩550
◯ 기초 재고자산 ₩360 ◯ 기말 재고자산 ₩440
◯ 매출채권회전율 5회 ◯ 재고자산회전율 4회

① ₩700
② ₩800
③ ₩900
④ ₩1,000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회전율에 평균 잔액을 곱하면 매출액은 2,500원, 매출원가는 1,600원이다.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차감**한 매출총이익은 900원이다.

계산 과정

1. 평균 잔액: 문제의 조건에 따라 회전율의 분모에는 **기초와 기말의 평균값**을 사용한다. 평균 매출채권은 $\frac{450+550}{2}=500$원이고, 평균 재고자산은 $\frac{360+440}{2}=400$원이다.

2. 매출액: 매출채권회전율은 매출액평균 매출채권이다. 따라서 평균 매출채권 500원에 회전율 5회를 곱하면 매출액은 500 × 5 = 2,500원이다.

3. 매출원가: 재고자산회전율은 매출원가평균 재고자산이다. 재고자산은 원가로 측정하므로 회전율의 분자도 **매출액이 아닌 매출원가**를 사용한다. 평균 재고자산 400원에 회전율 4회를 곱하면 매출원가는 400 × 4 = 1,600원이다.

4. 매출총이익: 매출액에서 판매된 재고자산의 원가인 매출원가를 차감한다. 매출총이익은 2,500 − 1,600 = 900원으로, ③의 금액과 일치한다.

NoteBase